



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와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경기회복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(ECB)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.
 -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 상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, 현재 경기부양을 위하여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 - 일본도 2010년부터 지속된 0~0.1%의 초저금리 속에서 디플레이션 및 엔화강세 국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베노믹스로(Abenomics)로 불리는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.
 - 유럽중앙은행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지난 5월 2일 기준금리를 0.75%에서 0.5%로 0.25%p 인하하였으며,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짐.

-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.
 - 호주 중앙은행(RBA)은 5월 7일 호주 달러의 강세 속에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.75%로 0.25%p 인하함.
 - 폴란드 중앙은행도 유로존의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5월 8일 기준금리를 3.25%에서 3%로 0.25%p 인하하였으며, 이는 2012년 11월 4.75%에 비하여 1.75%p나 낮은 수준임.
 -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5월 13일 기준금리를 1.5%로 0.25%p 인하하였으며, 향후 자국 통화인 세켈을 대대적으로 매도하고 약 21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매입하는 방안도 발표함.
 - 한편, 앞으로도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루마니아 등 신흥시장국의 금리인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- 우리나라도 지난 5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2.75%에서 2.5%로 0.25%p 인하하는 등 기준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.

-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는 유로지역 경제활동 부진,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미흡한 경제지표 개선 추세, 국내 내수 관련 지표의 미약한 성장세 등이 제시됨.
-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 유럽과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높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임.
- 최근 추경예산(안)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있음.

■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의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실물경기 회복보다 자산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.

-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등 실물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할 수 있음.
- 또한,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 상승은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버블일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버블 붕괴에 따른 가격하락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함.¹⁾

■ 보험산업의 경우 저금리 추세가 보험회사 자산운용 및 보험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
- 장기상품을 운용하는 보험회사의 특성 상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과거 고금리로 판매한 보험상품의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음.
 - 보험회사는 채권을 통한 자산운용 비중이 높으며, 기준금리 인하는 채권금리 인하로 이어져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
- 저금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, 향후 저금리 추세의 장기화 및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함.
 - 보험업계는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운용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.

(Financial Times, 한국경제 등)

1)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였음.